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10. 30.(수) 11:00, 배포 2024. 10. 30.(수) 06:00
(지면) 2024. 10. 31.(목) 조간

친환경 동력원 실증 선박, 바다에 처음 띄운다

- 세계 최초, 다양한 친환경 동력원을 하나의 선박에서 실증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다양한 친환경 동력원*과 기자재를 하나의 선박에서 실증할 수 있는 해상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, 오는 10월 31일(목) 전남 목포에서 진수식을 개최한다.

* 수소연료전지, 이차전지, 암모니아 혼소(混燒)엔진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 추진 장비

이번 행사에는 주관 연구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(소장 홍기용)와 선박을 건조한 한국메이드 등의 민간기업, 지자체(전라남도, 목포시), 그 밖에 친환경 해운·조선 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계, 산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.

*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/ '21~'25 / 총사업비 486억원

** (과제 참여기업) (주)KTE, (주)산엔지니어링, (주)리영에스엔디, (주)극동선박설계, (주)한국메이드 / (공동연구 및 투자) 전라남도, 목포시

이번에 건조한 선박은 총톤수 2,600톤급(길이 82.6m, 폭 18m) 규모로, 세계 최초로 한 선박에서 MW급 용량의 수소연료전지, 이차전지, 혼소엔진 등 다양한 친환경 동력원의 안전성과 성능 등을 동시에 시험할 수 있다.

기존에는 친환경 동력원별로 실증 선박을 각각 건조하거나 해외 선박 등을 활용하여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면, 이번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계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
한편, 해당 선박은 2024년 말부터 시운전 검사 및 시험 운항 등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실증 및 기자재 성능평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이번 해상실증 선박의 성공적인 건조 성과는 친환경 선박의 조기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”라며, “우리가 보유한 신기술을 표준화하는 등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양정책관	책임자	과 장	강미숙 (044-200-5240)
	해양개발과	담당자	사무관	안숙현 (044-200-566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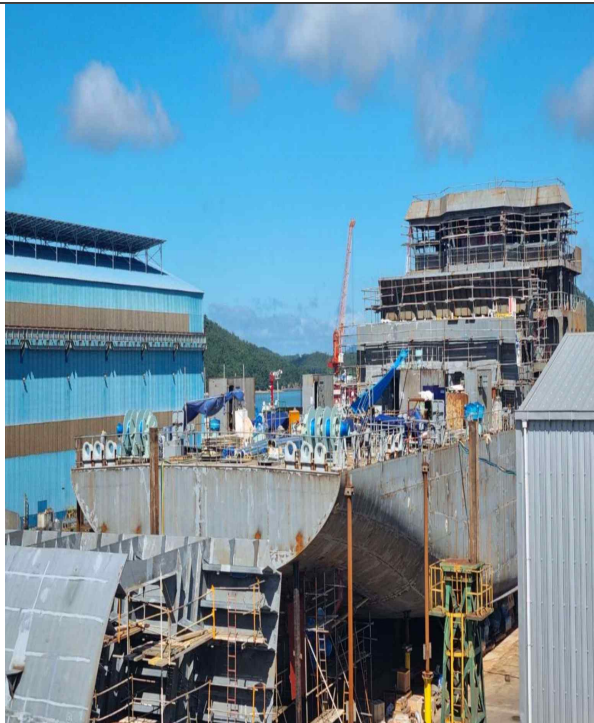
참 고

MW급 친환경대체연료 해상실증선박



사 양	내 용
길이 [m]	82.6
폭 [m]	18.0
흘수 [m]	3.6
총톤수 [ton]	2,600
승선인원 [p]	25(승무원 10, 연구원 15)
선체제질	Steel
정박지	목포연구거점
추진전동기	1,100KW, 2기
주발전기	LNG DF 1,500KW 이상, 2기
동력원	· 연료전지(수소, 메탄올 등) · 이차전지(배터리) · 혼소엔진(메탄올, 암모니아, 수소, LNG 등)

< 해상테스트베드 조감도 및 제원 >



<건조 현장>



<플로팅독 상가>